

# KIA, 독기로 겨울 뜨겁게 달군다

초라한 성적·연봉 삭감... 불펜·내외야 주전경쟁 치열  
서재응·김상훈 자비로 광행, 차일목·최희섭 함평 훈련

1위에서 8위로의 추락. 팬들은 물론 선수들에게도 잊지 못할 최악의 시즌이었다.  
벼랑 끝에 선 선수들 앞에 뜨거운 경쟁이 기다리면서 12월에 불이 붙었다. 광에서 자체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함평 챌린저스 필드에도 훈련 열기가 가득했다.  
길고 긴 시즌을 보내는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12월은 쉬어가는 달이다. 공식 훈련 없이 가족·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한해의 피로를 날리는 '방학'이다. 그런데 이번 방학에는 선수들의 학구열이 뜨겁

다. 자존심 회복과 생존이라는 두 목표가 선수들을 움직였다.  
올 시즌 KIA는 신생팀 NC에게까지 밀리면서 8위로 고개를 숙였고, 연봉 칼바람이 불면서 자존심도 추락했다. 실력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스파이크 끈을 조여댔다.  
'새 얼굴'의 등장도 12월의 긴장감을 더했다. 올 시즌 FA로 이응규가 떠났지만 '슈퍼 소년' 이대형이 합류하면서 외야와 톱타자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내야는 더욱 뜨겁다. 2014 루키 박찬호와 강한울이 마무리 캠프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선배들을 긴장시켰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노련한 김민우도 합류하면서 내야는 격전지가 됐다.  
불펜의 새 얼굴도 경쟁을 이르고 있다. 우선 지명으로 KIA의 선택을 받은 차명진과 2차 드래프트로 인연을 맺은 김태영·김준도 불펜 경쟁에 뛰어들면서 새바람을 불어 넣었다.  
광에서 먼저 시즌이 시작됐다. 재활이 필요한 김원섭·김주찬·박지훈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박정철·송은범이 지난 20일 따뜻한 광으로 떠났다.  
자율적이지만 치열한 이들의 훈련에 새로운 파트너가 더해졌다. 26일 베테랑 서재응과 김상훈이 '명예회복'을 외치며 광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자비로 떠나는 훈련. 그만큼 의지는 더 강하다.

함평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다. 12월은 비훈련 기간이지만 신인과 재향선수들에게는 예외의 시간. 프로 데뷔와 재기를 위한 훈련이 진행되는 함평에는 보이지 않아도 되는 얼굴들도 보였다. 최희섭·차일목이 12월 함평에서 후배들과 땀을 흘렸고, 안치홍·김민우의 내야 경쟁도 전개됐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봄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김주형·양현종은 모교 동성고를 훈련 장소로 선택해 후배들과 몸만들기에 한창이다.  
조용히 몸을 만들고 있는 이들의 본격적인 경쟁은 내년 15일 막이 오른다. 워크업을 통해 새 시즌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선수들은 국내에서의 합동훈련 없이 곧바로 스프링 캠프에 돌입한다. 투수조는 광, 야수들은 오키나와로 건너가 생존 싸움의 스타트를 끊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USSA 올해 선수 '김연아'

'피겨 여왕' 김연아(23)가 미국 스포츠아카데미(USSA)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가 됐다.  
USSA는 올 한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스포츠 선수로 여자는 김연아, 남자는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연아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제패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USSA 올해의 선수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  
USSA는 "김연아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후 2년간 공백기를 가졌음에도 올해 다시 돌아와 세계 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며 "그는 세계선수권에서 218.31점을 획득, 2위를 20점 이상 따돌렸다"고 말했다.  
2, 3위는 테니스 스타 세리나 윌리엄스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6관왕 미시 프랭클린(이상 미국)이 차지했다. 나달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와 '인간 탄환'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LPGA 7 스토리 '박인비'

'골프여제'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최고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냈다.  
LPGA는 26일 홈페이지에 올 시즌을 가장 뜨겁게 달군 13개의 이야기를 선정, 순차적으로 발표하면서 박인비가 올해 이룬 성과를 7 번째로 소개했다.  
LPGA는 "박인비는 개막 후 몇 개 대회만에 세계랭킹 1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LPGA '제1의 스토리'로 떠올랐다"고 올 시즌을 돌아봤다.  
박인비는 올해 메이저대회 3연승을 포함, 시즌 6승을 올리며 세계 제일의 여자 골퍼로 부상했다. 메이저 3연승은 1950년 베이브 자하리아스 이후 63년만으로, LPGA 투어는 박인비가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LPGA는 박인비가 올 시즌 상금 245만 6290달러(약 26억원)를 모으며 2년 연속 상금왕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 선수로서는 최초로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을 받아 역사적인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했다"고 칭찬했다.  
/연합뉴스



## 새해 만나러 갑니다

호주의 전통적인 여름 이벤트인 시드니-호버트 요트 레이스에 참가한 수십척의 요트들이 26일 시드니 항을 출발해 1170km 떨어진 태즈메니아(Tasmania)의 호버트로 향하고 있다. 1945년부터 매년 박싱 데이(12월 26일)에 시작하는 이 대회는 새해 전야 축하행사에 맞춰 종료된다.  
/연합뉴스

## 끝판왕 vs 빅보이 시범경기 맞짱

日 소프트뱅크-한신, 내년 3월 4~5일 격돌



오승환

2014년 일본프로야구를 빛낸 한국인 투타 거목 오승환(31·한신 타이거스)과 이대호(31·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시범경기에서 일말을 겨룬다.  
일본야구기구(NPB)가 최근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2014년 시범경기 일정을 보면 한신과 소프트뱅크는 3월 4~5일 오후 6시 소프트뱅크의 홈구장인 일본 후쿠오카 야후오쿠돔에서 격돌한다.  
각각 센트럴리그(한신), 퍼시픽리그(소프트뱅크)로 속한 리그가 달라 두 팀은 정규리그 개막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결한다.  
두 팀의 스프링캠프는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자 구장(한신)과 일본 미야자키현 아이비 스타디움(소프트뱅크)으로 떨어져 있어 연습경기도 치를 수 없다.  
한신과 소프트뱅크는 올겨울 팀의 아킬레스건을 한국 선수로 메우고 우승전력을 구축했다. 후지카와 규지의 미국 프로야구 진출 이후 마무리

부재로 골머리를 앓은 한신은 한국의 구원왕 오승환을 2년간 최대 9억원(약 90억9000만원)에 영입해 뱃문을 강화했다.  
소프트뱅크도 최대 3년간 20억원 이상(202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 검증된 거포 이대호를 영입하고 4번 타자 공백을 없앴다.  
팀 전력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두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시범경기부터 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신은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17차례, 소프트뱅크는 같은 기간 19차례 시범경기를 치른다.  
한신은 3월 28일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상대로, 소프트뱅크는 같은 날 야마하 마린스를 상대로 팀당 144경기 정규리그 대장정의 첫발을 떼는다.  
오승환과 이대호는 정규리그에서는 4번 맞붙는다. 내년 5월 20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인터리그(리그 교류전)가 대결 무대다.  
5월 23~24일 소프트뱅크의 홈구장에서 1,2차전을 치르고 6월 8~9일 한신의 홈인 효고현 고시엔 구장에서 옮겨 3~4차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이대호